



■ 연구원 주요일정

○ 09월 04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11주년 개원 기념 행사

- "9월 2일(土)~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1주년 기념행사를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 경기 및 벼룩시장, 애장품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약 70여분의 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올해 회원의 날에는 최근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며,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ㄹ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안내

지난 학술대회와 공동사업인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가 **9월 16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광복회 전북지부와 우리 연구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조광 前 원장님 연구원 방문

8월 31일 조광 前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14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바쁘신 와중에도 전주대학교 디아스포라 강좌 진행과 회원의 날을 앞둔 연구원 사무국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전주를 찾으신 후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우리 연구원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좌가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히 첫 강의는 우리 연구원 초대 원장이자 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연구원 홍응호 회원, 강영식 이사, 이규수 전문운영위원, 윤상원 운영위원, 홍성덕 이사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II

본 강의는 일본 원아시아재단이 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한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대학의 관련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된 본 강의는 국내 최고의 관련 연구자들과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세계적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주차	수업 주제	강사	날짜	장소
1	안중근 가(家)의 디아스포라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17.08.31	스타센터 온누리홀
2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	정선모 중국 남경대 교수	2017.09.07	진리관 307
3	디아스포라의 삶	서경식 일본 도쿄경제대 교수	2017.09.14	진리관 307
4	러시아 소수민족과 동아시아 공동체-고려인을 중심으로	홍응호 동국대 교수	2017.09.21	진리관 307
5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김광희 중국 연변대 교수	2017.09.28	진리관 307
6	남북간 민간교류와 한반도 평화공동체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2017.10.12	진리관 307
7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와 한반도	이규수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	2017.10.19	진리관 307
8	시베리아 철도와 고려인-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의미	윤상원 전북대 교수	2017.10.26	진리관 307
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어제와 오늘	최영근 고려인 극작가	2017.11.02	진리관 307
10	동아시아의 마이너리티 - 권리보호의 현상과 과제	유효중 일본 와코대 교수	2017.11.09	진리관 307
11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 - 조선시대 인적 교류	홍성덕 전주대 교수	2017.11.16	진리관 307
12	출에서 본 디아스포라 모더니티 - 최송희의 경우	이연숙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	2017.11.23	진리관 307
13	김사량 - 민족해방과 국제주의의 교차로에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2017.11.30	스타센터 온누리홀
14	Cultural Identity in movement	박채록 칠레 예술가	2017.12.07	예술관 아트홀
15	지금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	정준곤 원아시아재단 수석연구원	2017.12.14	스타센터 온누리홀

기간 | 2017.8.31(목)-12.14.(목)까지
장소 |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
 예술관 아트홀, 진리관 307호
문의처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063-220-3143)
홈페이지 | www.jj.ac.kr/icsk

※본 강의는 수강신청자 이외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전북도민일보 “전북의 항일운동가” 기획특집 연재

- 우리 연구원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K-History사업단, 광복회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전북의 항일운동가” 기획특집 연재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자문 : 윤상원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운영위원/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꽃이자 바위였던 혁명전사, 화암 정현섭(1896~1981)

<전북 항일운동가 魂 되살린다> 1부-항일운동가의 삶 <8>



지금도 그렇지만 1920년대 초 중국 상해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였다.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조계지'라는 이름으로 상해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어 가졌다. 그 땅에서 중국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상해는 '제국의 시대'에 열강에 의해 분점된 비유럽권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그야말로 제국주의 열강의 욕망이 가감없이 투영되는 장소였다. 상해는 반식민지 국가 중국의 심장부에 들어선 식민도시였다. 이곳 상해에는 주상해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격살하려 육삼정의거를 기획했던 전북(김제) 출신의 항일운동가 화암 정현섭(1896~1981)이 중심에 있었다.

#. 상해의 젊은 그들

상해는 혁명의 도시였다. 중국의 혁명을 꿈꾸던 젊은 사회주의들은 상해에 모여 중국공산당을 조직했다. 여전히 스스로 공산주의국가임을 자임하는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상해는 성지(聖地)이다. 착취와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던 ана키스트들도 상해로 모여들었다.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을 활용해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가들에게도 상해는 활동을 위한 최적지였다.

“음습한 비바람이 스며드는 상해의 깊은 밤 어느 지하실에서 함께 주먹을 부르주던...”
심훈의 '박군의 얼굴'에 소개된 일부다.

식민지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청춘의 피를 뿌렸다. 임시정부가 상해에 자리잡은 이유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시종일관 외교론이 주류였다. 하지만 상해에는 외교론이 아닌 직접행동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다. 영화 '암살'과 '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밀양 사람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 대표적이다. 해주 사람 김구는 임시정부의 별동대로 '애국단'을 조직했고, 서울 사람 이봉창과 홍성 사람 윤봉길은 자신의 몸을 조국 독립의 제단에 바쳤다.

1930년대 초 상해에는 의열단, 애국단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단체가 있다. 상해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조직한 '남화한인청년연맹'이 그것이다. 아나키즘운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의 청년들이 조직한 단체다. 홍구공원 의거를 모의했고, 주(駐)상해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격살하려 했던 육삼정의거를 기획했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중심에는 정읍 사람 백정기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김제 사람 정현섭이 있었다.

#. 30여년 타국서 항일투쟁 펼쳐

정현섭의 호는 '화암(華岩)'이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외를 떠돌며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그를 동지들은 '화암'으로 불렀다. 그는 호 그대로 바위같은 사람이었다. 화암은 1896년 전북 김제군 월촌면 장화리에서 태어났다. 외조부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활동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할 때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 부정부패가 가득 찬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던 외조부의 희망과 의지가 화암에게 전승되었는지 그는 어려서부터 반골정신이 강했다.

#. 화암, 중국 대륙을 누비다

북경에 정착한 화암은 1924년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유자명 등과 함께 '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을 설립했다. 이후 화암은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염원하는 아나키스트로서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다. 그는 독립운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하여 기관지인 '정의공보(正義公報)'를 발행했다.

화암의 활동공간은 북경과 천진, 상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30년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 김좌진 피살 이후 북만주의 운동을 돕기 위해 화암은 동지들과 함께 북만주로 파견, 북만주 해림으로 건너간 화암은 항일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만주 침략을 획책하던 일제가 북만주 일대에 대수색작전을 벌이자 부득이하게 상해로 귀환했다.

상해로 귀환한 화암과 동지들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설립했다. 연맹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을 해방시킨 후 아나키즘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31년 11월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아나키스트들을 구성원으로 '흑색공포단'을 조직해 일본영사관과 일본군 병영에 폭탄을 던지는 등 무력항쟁을 계속했다. 1933년 3월 중순 화암은 주상해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라키(有吉明)가 중국 유력자들을 고급 요정 육삼정(六三亭)으로 초청해 연해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리요시 공사를 사살하려고 계획했으나 밀정의 밀고로 실패했다. 1936년에는 호서은행에서 탈취한 5만 7000원을 기금으로 기관지 '남화통신(南華通信)'을 발행해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화암은 복건성과 상해를 오가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광복군의 현지 책임자로 활동했다.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군의 포로수용소 소재지를 정탐해 미국 공군에 보고하는 등 정보활동을 했으며,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된 조선인 학도병을 탈출시켜 임시정부로 보내는 공작도 전개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화암은 상해거류민단장, 인성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포의 구제와 교육에 주력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상해에 '조선학전관'과 '신채호학사'를 설립해 한국학 연구의 길을 텃다. 해방 이후 전개된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자 화암은 대만을 거쳐 홍콩으로 옮겨갔다가 1954년에야 마침내 귀국했다.



#. 해방 후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1921년에 망명해 해방을 맞을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화암은 많은 동지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처음으로 국경을 함께 넘었던 이종락을 비롯해 1924년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만들었던 이정규, 이을규 형제는 차례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후 옥고를 치렀다.

화암의 동지이자 스승인 우당 이회영은 1932년 11월 일제가 점령한 만주에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러 가던 중 대련에서 내부 밀고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66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치게 되자 화암은 비밀리에 조사를 통해 밀고자를 처단하기도 했다.

화암은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다. 좌우의 대립 속에 조국은 분단되었다. 분단된 조국의 남쪽과 북쪽에는 나란히 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 화암의 투쟁은 멈출 수 없었다. 화암은 다시 이승만의 독재에 맞선 싸움을 시작했다. 4.19혁명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노(老)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감옥에서 나온 화암은 3선개헌과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다 1981년 10월 21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대한민국 정부는 화암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착취와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던 화암의 꿈은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악(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 작 품

留別王侍御維(류별왕시어유) 시어 왕유에게 헤어지며 남긴 시

寂寂竟何待(적적경하대)	허망한 신세가 끝내 무얼 기다릴까?
朝朝空自歸(조조공자귀)	아침이면 아침마다 하릴없이 홀로 돌아오는데
欲尋芳草去(욕심방초거)	향긋한 풀 찾아 떠나려함에,
惜與故人違(석여고인위)	옛 벗과 헤어짐이 애석하여라
當路誰相假(당로수상가)	권력자들 중에 누가 나를 끌어주었던가?
知音世所稀(지음세소희)	진정 나를 알아주는 친구 세상에는 드무나니
祇應守寂寞(지응수적막)	다만 적막한 산천이나 지키고자,
還掩故園扉(환엄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사립문을 닫으려하네.

■ 감 상

이 시는 맹호연이 장안을 떠나 왕유와 이별하면서 지은 작품으로, 개원(開元) 22년(734)의 가을이나 그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1구에서 4구까지는 관직을 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은거를 결심하면서 왕유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왕유와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사환과 은거에 대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앞의 네 구가 시인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면, 이어지는 5-6구는 떠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벼슬에 대한 욕망이 표출되어 있다. 마지막 7-8구는 '安分(안분)'으로,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도연명과 달리 맹호연의 은거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시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 미케네(Mikines)의 보물 창고 -



미케네를 얘기하자면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트로이 전쟁이다. 목마로 이름 되는 트로이 전쟁이 미케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알선으로 미케네에 오게 되고 이곳 왕 메넬라오스의 비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친다. 이에 화가 난 메넬라오스는 형인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전체에서 강력한 미케네 왕국의 왕이었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간청에 연합군을 조직하고 1000여척의 함대를 이끌고 에게해를 건너 터키의 트로이로 진격하였다.

트로이도 만만찮아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장기전이 되었다. 서로 지칠 무렵 그리스 연합군은 마지막 꾀를 내어 커다란 목마를 해안가에 두고 철수하는 것처럼 꾸몄다. 트로이군은 그리스 연합군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포기하고 철군하는 것으로 믿고 그들이 두고 간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었다. 그날 밤 트로이는 승리의 자축연을 벌였고 군인들은 술에 골아 떨어졌다.

이때 목마에 숨어 있던 그리스 군이 나와 무방비 상태가 된 트로이군을 전멸시켰고 10년 만에 트로이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다시 미케네로 돌아 왔다. 이 미케네가 황금 보물로 가득했던 곳이다. 호메로스의 세계적 고전인 『일리아스』에 황금 술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한 노인이 고향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술잔이 있는데, 그 술잔에는 황금 못이 여러 개 박혀 있고 손잡이는 네 개가 달렸다. 그리고 손잡이마다 황금 비둘기가 두 마리씩 앉아 있었다. 이 술잔은 미케네에서 가져온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미케네는 황금이 풍부한 곳이라」 묘사되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역사학자들도 '전설일 뿐이다'라고 일축할 때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하인리히 슐리만은 어린 시절부터 이를 사실로 믿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어른이 되어서 이를 발굴하고야 말겠다고 맹세를 했다. 슐리만은 그의 의지대로 상인으로 성공하여 갑부가 되자 어릴 적 꿈을 실행에 옮겼다. 결국 터키의 트로이와 그리스 미케네를 발굴하여 엄청난 고대 유물을 발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수 천 년 동안 산속에 깊숙이 묻혀 있던 미케네 왕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일 이어지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분다. 유독 더웠던 올 여름, 그 뜨거운 한가운데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곤 하는 밀양에 시부모님과 함께 다녀왔다. 2007년 영화 '밀양'이 개봉한 후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지 10년 만에... 밀양의 대표 유적 영남루(보물 제147호)는 2015년 초 가야 유적 전체를 도는 답사 때 점심을 먹기 위해 지나가면서 잠시 들렀기 때문에, 시내로는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만 주로 돌았다.

처음 들른 곳은 한여름 피서지로 이름이 높은 얼음골이었다. 얼음골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말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암과 응회암이 빙하기가 되면서 암석들이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석들이 조각나게 되고 이 암석 조각들이 무너져 내려 경사면에 쌓이게 되었는데, 이 돌들 사이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계곡물이 얼지 않는 신기한 곳이다.



밀양 얼음골의 결빙지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얼음골 결빙지의 얼음
©문화재청

이와 같은 현상은 암석 속에 틈이 많이 생겨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의성 빙계리 얼음골(천연기념물 제527호)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결빙지로 올라가면서 계곡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돛자리를 깔고 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시원하면 이곳으로 피서를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빙지 근처 데크에 도착하자 에어컨 바람보다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것을 몸소 맞다 보니, 왜 이곳으로 피서를 오는지 알 것 같았다. 산을 타고 올라오느라 더워서 얼굴은 빨갛고 화끈거리는데 발은 시원하다 못해 시리다니, 정말 놀라웠다.



밀양 만어산 암괴류
(천연기념물 제528호)



소원을 빌고 돌을 들었을 때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만어사의 신비한 돌

밀양에서의 신기한 경험은, 이어 방문한 만어사에서도 이어졌다. 만어사는 수명이 다한 용왕의 아들이 길을 가다 멈춰 미륵보살이 된 곳으로, 용왕의 아들을 따라오던 수많은 물고기떼가 돌로 변해 돌무더기군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만어사 미륵전 아래 끝없이 펼쳐진 돌무더기군을 만어산 암괴류라고 부르는데, 돌무더기의 돌 하나를 들어 다른 돌을 내려치면 종소리 혹은 목탁소리가 난다. 모든 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잘 골라서 쳐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돌을 만어석이라고 부른다.



<표충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호)>

만어사에서 내려와 대구 시댁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속도로로 향하다, 근처의 표충비에 들렀다. 표충비는 사명대사의 충절을 기리는 비로 서산대사의 제자인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스승의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길한 징조가 보일 때 맘을 흘린다고 한다. 나라를 위하는 사명대사의 마음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

렇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신비하기 그지없다.

그러고 보니 하루에 밀양의 3대 신비라 불리는 얼음골, 만어산 암괴류, 표충비를 모두 돌아봤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오면 중간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아 모두 돌아볼 수 있었다. 이것도 밀양에서의 그날의 신비라 할 수 있을까?